

■ 주요 뉴스: 美中 무역합의 팩트시트, 미국의 對中 관세 인하 및 중국의 팬타닐 통제 확인

- G7, 광물 동맹 출범. 중국의 희토류 장악 견제가 주요 목적
- 영란은행,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예상. 일부 금리 인하 전망도 제기
- OPEC+ 주요국, 12월부터 소폭 증산에 합의. 향후 증산 속도 둔화될 전망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美中 정상회담, 10월 FOMC 결과 등이 영향

주가 상승[+0.7%], 달러화 강세[+0.9%], 금리 상승[+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美中 무역갈등 완화 기대,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연준 금리 경로 불확실성, 일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파월 의장 발언이 다소 매파적이라는 평가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8%, 0.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2월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으로 상승
독일은 ECB 금리 동결 및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5% 하락, 한국 CDS 하락

		10/31일	10/24일	전주말대비			10/31일	10/24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840.2	6,791.7	+0.71%	국채 금리 10y	미국	4.08%	4.00%	+8bp
	유럽	571.89	575.76	-0.67%		독일	2.63%	2.63%	+1bp
	중국	3,954.8	3,950.3	+0.11%		영국	4.41%	4.43%	-2bp
	일본	52,411	49,300	+6.31%	CDS 5y	한국	22bp	25bp	-3bp
	한국	4,107.5	3,941.6	+4.21%		중국	40bp	44bp	-4bp
환율	달러지수	99.80	98.95	+0.86%	위험 지표	EMBI+	272	283	-11bp
	유로화	1.1537	1.1627	-0.77%		VIX	17.44	16.37	+6.54%
	엔화	153.99	152.86	-0.73%		WTI유	60.98	61.50	-0.85%
	위안화	7.1194	7.1225	+0.04%	원자재	구리	508.9	512.3	-0.65%
	원화	1,433.0	1,439.4	+0.45%		금	4,002.9	4,113.1	-2.6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美中 무역합의 팩트시트, 미국의 對中 관세 인하 및 중국의 펜타닐 통제 확인

- 미국 측이 공개한 팩트시트(FactSheet)에 따르면,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쓰이는 물질의 對美 선적을 통제하기로 결정. 또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하고, 포괄적 허가를 발급할 계획. 미국 백악관은 포괄적 허가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사실상 철회된다는 의미라고 설명
- 또한 중국은 미국의 해상·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 및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결정. 아울러 자국의 반도체 기업 Nexperia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중단하고, 미국産 대두·닭고기·밀 등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여 일부 비관세 조치도 철회하기로 결정
- 미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對中 관세를 10%p 인하. 그 동안 미국은 중국의 펜타닐 및 관련 물질의 수출을 이유로 20%p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 조치로 부과된 추가 관세의 절반이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수출 단속에 응하면 나머지 10%의 추가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언급
- 아울러 중국 해운 및 조선사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도 완화할 방침.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가 자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지키고 근로자·농민·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평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를 활용한 레버리지(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 한편, EU의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가 EU에도 적용된다고 발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G7, 광물 동맹 출범. 중국의 희토류 장악 견제가 주요 목적

- 주요 언론 따르면, 10/30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7의 에너지장관은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체결하고 이행 계획을 공개. 해당 계획은 국방, 청정 에너지, 첨단 제조 공급망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 생산 공정 등의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포함.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글로벌 희토류 생산 공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

■ 미국 트럼프, 핵무기 실험 개시. 국방장관은 중국과 소통 채널 구축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언. 시장에서는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평가. 한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향후 갈등 예방과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 국방부장과 문제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 채택. 자유무역·디지털 혁신·포용적 성장 등을 강조

- 공동선언인 '경주선언'을 채택. 이를 통해 자유무역, 디지털 혁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AI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의 현안도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

■ 영란은행,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예상. 일부 금리 인하 전망도 제기

- 영란은행은 11/6일 통화정책회의를 가질 예정.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편. 하지만, Goldman Sachs와 Barclays 등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특히 식품물가 상승률이 전월비 떨어졌다면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

■ 중국 10월 제조업 PMI, 전월비 하락. 7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 하회

-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는 49.0을 기록, 전월(49.8) 대비 하락. 7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인 50을 하회했고, 예상치(49.6)도 하회. 시장에서는 길었던 연휴와 복잡해진 세계경제 여건 등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비제조업 PMI는 50.1로 전월(50.0) 대비 소폭 상승

■ OPEC+ 주요국, 12월부터 소폭 증산에 합의. 향후 증산 속도 둔화될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의 8개 주요국은 내년 1/4분기 추가 증산 대신 12월에 13.7만배럴 증산에 나서고 이를 내년 3월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 1/4분기의 경우 계절적 영향으로 수요가 약하다고 설명. 시장에서는 증산을 통해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해당 속도를 다소 늦추고 있다고 분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3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서머타임 종료, 10월 ISM 제조업 PMI,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 발언
- 중국 10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캐나다 중앙은행 맥클렘 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10월 글로벌 채권 가격, 강력한 회복 국면 진입에도 불안 요인 상존 - Reuters

(An October to remember for bruised global bond markets)

- 연초 이후 주요국 채권시장은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혼란스러운 국면. 하지만 물가 우려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의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발표로 금리인하 기대로 바뀌었고, 글로벌 무역갈등 완화 및 일본 등에서의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다수의 시장에서 10월 국채금리 상당 수준 하락
- 하지만, 미국의 12월 금리인하 기대 약화, 독일 재정지출 확대 정책, 프랑스 정치 불안, 영국의 예산 문제 등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상존.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와 구조적으로 악화된 국채 수요 등은 장기채권 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

■ 미국, 중국과의 1년간 무역전쟁 휴전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 대비할 필요 - 블룸버그

(Will the One-Year Trade Truce Actually Last a Year?)

- 美中 양국은 APEC 정상회담에서 1년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 이에 세계무역 혼란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증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중국이 여전히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결과로 인한 양국의 무역관계 안정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
- 특히, 중국은 현대 경제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는 희토류 및 일부 광물의 공급에서 미국보다 우위. 이에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만족하기 보다는 중국 의존도를 벗어난 공급망 구축 시도 서두를 필요. 또한 對中 견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우호 증진, 국내 정치 안정화 노력 등도 중요

■ 미국 정부, 심화되는 연방부채 위험을 외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 블룸버그

(Washington ignores a looming fiscal emergency)

- 정부는 `25 회계연도에 1.8조 달러를 차입. 이는 GDP의 6% 수준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 정치권은 섣달 등 단기 현안에 몰두하여 다가오는 재정위기를 외면. `50년 GDP 대비 부채비율이 225%를 넘을 것으로 추정(CBO).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 증폭되면 금리 상승하며 결국 재정의 벽에 봉착
- 대규모 재정적자를 위한 쉬운 해법은 없고, 부채의 안정화(GDP의 100% 수준) 위해서는 매년 5천억 달러의 적자 감축이 필요. 이 경우에도 경기침체 혹은 비상사태 대응할 여력이 부족. 당국은 즉시 현실적 대책 모색할 필요

■ 연준 내부의 통화정책 이견, 제도적 변화 필요성 주장은 과도한 반응 - 블룸버그

(This Fed Dissent Looks Tame Compared With What's to Come)

- 연준은 그 동안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대체로 전원 합의 형태로 진행. 하지만 최근에는 7월 FOMC 이후 연속적으로 세 차례 반대 의견이 제기. 이에 그간 유지되어 온 합의 문화의 효용성 논란과 와해 가능성 등이 제기. 동시에 파월 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 제도적 변화 필요성 등도 거론
-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과도한 반응. 역사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경향이 강화되었기 때문. 최근 역시 인플레이션이 목표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실업률은 역사적 기준에서 아직 낮은 수준(다만 고용은 둔화 추세). 이를 감안한다면, 현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교체 혹은 제도적 변화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 접근

■ 미국 기업의 노동력 보유 의지, 수요 둔화 및 AI 기대 등으로 점차 약화 - WSJ

(Why Companies Are No Longer Hanging On to Employees)

■ 미국 증시 붕괴 예측, 변동성의 기본적 특성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 내재 - The Economist

(Why Wall Street won't see the next crash coming)

■ 미국 빅테크 실적과 시장 반응,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익과 현금흐름 - Financial Times

(Big Tech earnings: profits and cash still matter)

■ 미국 AI 관련 회사채 발행 급증, 거품 해소 시 신용시장 타격 우려 - Financial Times

(Credit market hit with \$200bn 'flood' of AI-related issu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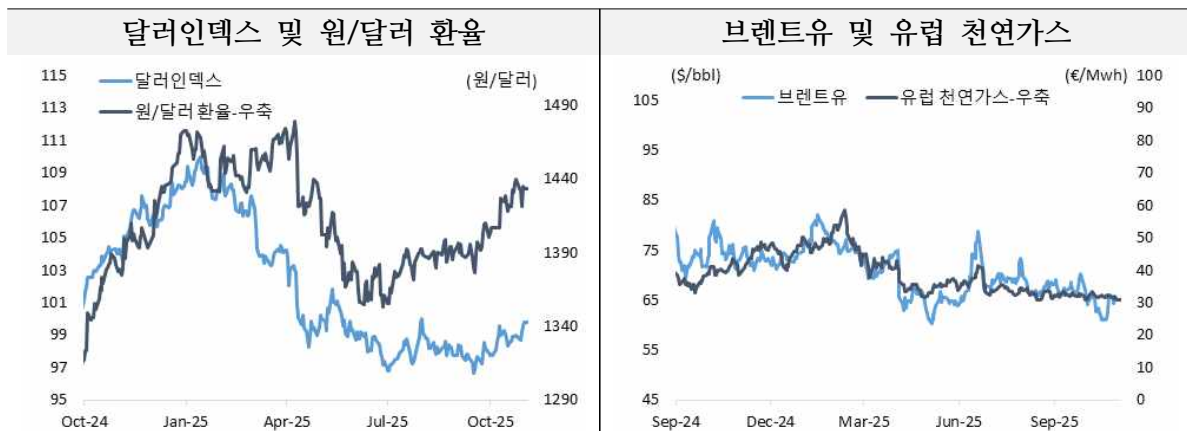
■ 중국, 美中 정상회담 통해 미국 경쟁자로서의 입지 확고하게 구축 - Financial Times

(China emerges as US 'peer rival' at Xi Jinping-Donald Trump summit)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